

#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봄 호 | 2015년 4월 23일

발행인 유병우 회장  
 편집인 이성운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 개인택시 차량구입비 부가세 감면 연장 '청신호'

새누리당 나성린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인택시 차량구입비 부가세 감면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누리당 나성린의원(부산진구갑, 새누리당 정책위 정책자문위원장)은 개인택시 차량구입비 부가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 말 일몰 종료에 따라 개인택시 차량구입비 부담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조특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위원이자 '새누리당 정책통'으로 불

리는 나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택시차량의 각종 안전기준 확대 적용 등으로 해마다 가격이 인상되는 반면 이용고객 수요 감소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는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유례없는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여객운송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새누리당 정책위 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는 택시업계의 의견수렴은 물론 다가올 제20대 총선공약 수립 시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대책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앞서 2012년 법안통과 당시에도 법률안 발의는 물론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률안 통과에 앞장섰으며 제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대선공약단) 민생경제대응단장을 맡아 택시대책 수립을 주도하는 등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렌터카 임대차 허용 반대

유병우 회장, 법안 소위 구성되면 항의 방문 할 터

우리 연합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안전행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중국인 등 단기체류 등에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렌터카 임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반대 법안 통과를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유병우 회장은 제주조합 이치현 이사장으로부터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제203조'가 단기체류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이라는 보고를 받고 연합회의 역량을 집중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회장은 "관광객 유치의 편의를 위해서는 단기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운전할 수 있게 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골육지책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그 폐해가 고스란히 택시업계에 전가된다"고 법안 저지 이유를 설명했다.

유 회장은 "1단계로 지난 1월 19일

택시 노사 4단체와 함께 국회안 행정위원들에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법안 소위가 구성되어 심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법안 소위 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법안 폐지에 협조를 당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조합 이치현 이사장도 제주도 택시노사 4단체 단체장과 함께 법안소위 심의 때 상경 반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개정법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이하 "단기체류 운전면허"라 한다)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한정하고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90일 이내로 한다.

②. 단기체류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지역은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로 한정한다.

##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

최고한도 4,000만원 + 연 5.9% + 수수료 0원



### 상품안내

- 전화 한 통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
- 차량담보가치를 활용한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 한도 : 최소 300만원 ~ 최고 4,000만원
- 금리 : 최저 연 5.9% ~ 최고 19.9%(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 기간 : 12/24/36개월 중 선택 가능
- 근저당 비용 : 없음
- 취급·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연체 이자율 : 17.9 ~ 29%(대출금리별 차등 적용)

### 혜택

- 개인택시 기사님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 (한시적 적용으로 금리 변경 가능)
- 방문 없이 전화로 대출 가능(심사기준 완화)

### 대상고객 및 차종

- 운행 이력 1년 이상의 개인택시 사업자
- 출고 이후 7년 이내의 본인 소유 택시
- 기타 본인 소유 차량 담보 가능(승용, RV, 승합, 상용 등)
- 설정 및 압류 차량인 경우, 해지 후 대출가능

### 이용방법

- 현대캐피탈 고객센터 1588-5330 (상담 시 전국 개인택시 공제 조합원 여부를 상담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 대상고객, 차종,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확인 요망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준법감사심의필 제140702-165545호(2014.07.0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내용)

◆ 발의연월일 : 2015. 2. 24.

◆ 발 의 자 : 나성린·정문헌·장윤석·류지영·강석호·김광림박맹우·류성걸·이만우·홍철호·주영순 의원(11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전국에 16만4천여대가 면허되어 여객운송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공급과다 및 수요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직면해 있음.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택시차량은 에어백 의무화 등 각종 안전기준 확대 적용 등으로 매년 가격이 인상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용고객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자동차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

하려는 것임.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후단 중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를 “제9호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 “적용하며”를 “적용하고”로 한다.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감차보상 시범사업 추진한 대전시

## 개인택시 18대 신청·법인은 보상이 낮아 전무

감차보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해온 대전조합은 지난 3월 31일까지 18대의 감차보상 신청을 받아 이중 12대를 4월 3일 감차 단행했다.

감차 시범 사업은 법인택시 3370대, 개인택시 5480대 등 총 8850대 중 감차 규모를 51대로 목표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동안 추진 해왔다.

보상금액은 법인택시는 3600만원, 개인택시 9000만원으로 감차보상을 추진했으나 개인택시보다 보상가격이 현격히 낮은 법인택시는 응하지 않은 반면 보상가격이 현실 매매 가격이 근사하게 반영된 개인택시는 18대가 신청 목표의 56.25%가 실현되어 시범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분

석되고 있다.

대전감차위원회(위원장 정승호 대전시 과장)는 개인택시 신청자 18명 중 감차가 보류된 6명은 행정 별척 및 민사적 압류 등 심사 사항이 확인중에 있어 심사가 끝나면 감차가 이뤄진다.

“대전지역의 보상감차 신청이 예상보다 낮은 것은 실시 첫 해라는 점 때문에 금지된 개인택시 양도가 풀려지지 않을까하는 관망세가 우세하여 망설임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홍신자 업무과장은 분석했다.

이번 대전지역 감차 소요재원은 감차예산 663억원, 출연금 26억1백만원, 부가세 3억, 시범지역 인센티브 80억원 중 2015년 40억원, 2016년 20억원, 2017년 20억원 등 균등배분된다.

# 현대카드M-개인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자동차생활카드



**연회비**  
유류 국내전용 면제  
일반 국내전용 5,000원(초년도 정상 부과, 차년도 이후 면제)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서비스

### LPG 충전 시 리터당 239원 면세 및 보조금 혜택

- LPG 리터 측정 기준은 국토부, 국제청 기준
- 일 4회 한도
- 부제일 이용권, 1회 충전 한도량 72리터 초과 시 지급 거절
- 충전 회차 1시간 이하건 서비스 제공 불가
- 보조금 혜택 기준은 국토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SK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1%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 현대·기아차 구매 시 30만원까지 선포인트 받아 사용하고 매달 M포인트로 상환하는 차량 구매 프로그램(만기 종료 시 잔액은 익월 일시 청구)

### 종합건강검진 우대서비스

- 예약 시 40~60% 할인
- 전국 130개 이상 건강검진센터 예약 가능

- 카드 이용금액 연체 시 23.5~29.5%의 연체이자율 적용
-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내 상품 설명 및 약관 참고
- 카드 신청은 전국 시·도 조함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

## M포인트 적립 및 사용

### 모든 가맹점에서 0.5~2%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 및 신차 구매 시 별도 적립률 적용 (세이브-오토 이용 시 1,000원당 20 M포인트 적립)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회비, 제수수로, 이자,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도시가스 요금,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건 및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수수료, 당사의 모든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적립 제외

###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시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 보유하고 있는 현대카드 포인트를 통합하여 1인당 5년간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가능
- M포인트+세이브-오토 포인트+통장포인트+가족 M포인트+5카드 오토 포인트 +BLUEmembers 포인트 통합 한도
- M포인트 사용은 구매 이전에 적립된 M포인트에 한하며, 해당 차량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 불가
- BLUEmembers 포인트는 현대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
- KIA RED MEMBERS 포인트(구 Qmembers 포인트)는 기아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사심의필 제150316-154402호(2015.04.08)



현대카드 홈페이지  
www.hyundaicard.com

현대카드 고객센터  
1577-6000





## 故 김민환 인천조합 이사장 장례식

9천여 조합원들의 애도 속에 인천조합개인택시조합장으로 엄수

제 11대 인천조합 김민환 이사장의 장례식이 4월 8일 인천 개인택시 조합장으로 인천 청기와 장례식장에서 유가족과 동료 조합원들의 애도속에 엄숙히 치뤄졌다.

인천조합 이사회와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5일장으로 치뤄진 인천개인택시조합 장례식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고

김민환 이사장을 추모하는 추모객 700명이 조문했다.

유병우 연합회장 및 15개 시·도 이사장을 비롯 유정복 인천시장, 윤상현, 이학재, 문병호 국회의원, 박우섭 남구청장, 법무법인 서창 대표 등과 인천조합 등 조문객들은 60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한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슬퍼했다.

유병우 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지난 4월 4일 토요일 오전, 청천벽력 같은 사고 소식을 접하고 하늘이 원망스럽고 산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늘이시여! 산천초목이시여!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어찌 이리 빨리 데려가십니까?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말씀이 골수에 사무치는 시간입니다” 라고 애통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1989년에 인천개인택시 운송 면허를 취득, 개인택시에 입문한 고인은 인천개인택시 조합 제 11대, 8대 이사와 인천연수모범택시 초대, 2대 회장을 거쳐 2014년 1월 1일 제 11대 인천개인택시 사업조합 이사장에 취임 9천여 조합원의 조합발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다 뜻밖의 사고사로 임기를 2년 9개월이나 남겨두고 애석하게 타계했다.

## 김성태 의원 주최 “고급택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유병우) 및 전국법인택시운송사

업조합회(회장 박복규)는 2015년 4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의원(국회 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주최로 고급택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 운영되고 있는 ‘우버’를 통해 고급 승용 택시를 원하는 수요가 확인된 만큼 우버 형태가 아닌 합법 운영되고 있는 택시 일부를 고급차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 및 발제를 맡은 서울 연구

원 안기정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도 고급택시가 활성화돼 있는 만큼 콜 전용 고급택시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는

-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
- 국토교통부 박지홍 신고통개발과장
- 서울특별시 양완수 택시물류과장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오광원 이사장
- 한국MICE협회 장동원 본부장이 나서 열린 토론회에 나섰다.





## 우리 모두는 미래의 어르신 운전자

201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보행 중  
사상자는 사망 951명 부상 9413명 입니다.  
지금 앞에 계신 어르신이 당신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본적인 배려와 안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 이호충 당선자 12대 경남조합 이사장에 취임

#### 택시요금인상·운전자 보수교육 대상 완화추진



지난 3월 6일 경남조합 12대 이사장에 이호충 당선자가 취임했다.

이호충 신임 이사장은 지난 2월 7일 전임 이사장 유고시부터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다 3월 6일 실시한 12대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 바로 취임했다.

외부 인사초청 없이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취임식을 갖고 취임한 이호충 이사장은 2013년 7월 1일자로 인상된 택시 요금을 경남도와 협의하여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보상감차에 업계가 부담하는 감차 재원이 영세한 개인택시업계에 염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교통문화 연수원에서 1년에 6시간을 이수해야하는 보수 교육 대상자는 10년간 무사고 무벌점을 5년간 무사고 무벌점으로 완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합천 출생인 이호충 이사장은 1992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 개인택시에 입문 1998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합천군 지부 지부장을 역임했다.

1981년에 합천군 지역 자율방범대 발족시키고 12년동 봉사대장 직을 맡아 봉사활동을 해왔다.

‘근고지영’이란 사자성어를 좋아하는 이호충 이사장은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듯이 조합의 주춧돌을 다시 놓고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 제32차 대의원 정기총회 성료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최현태)는 지난 2월27일 오전 10:00 도내 시·군 대의원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가졌다.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총회에서는 1부 기념식행사와 2부에서 총회에 상정된 2014년 결산보고,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의의를 가졌으며 3부에서 조합11대 이사선출등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택시요금인상조정, 유가보조금 부가가치세면제,감차보상금 현실화등,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업권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조합원 모두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하였다.

### 사 랑 하 세 요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신문은 16만 개인택시사업자의 신문입니다. 등산, 조기축구 등 동아리 모임이나 봉사모임 단체의 기사제보를 받습니다.

기사제보 | ☎ 010-8759-4181

## 택시 자율감차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15. 03. 24(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운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자율감차 규정이 추가되어 「택시발전법」이 시행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권병윤, 택시산업팀장 김유인은 대전광역시

역시 시범사업 결과 등과 관련하여 연합회 부회장, 수도권 지역 이사장 (서울조합 국철희 이사장, 부산조합 박권수 이사장, 인천조합 김민환 이사장, 경기조합 조창영 이사장, 강원조합 김주원 이사장, 경북조합 서돌식 이사장) 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 논의 주요내용으로는
  - 업계 출연금 확보 방안으로 개인택시연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10당 70원) 감차재원으로 활용 건의
  - 감차기간 제한 완화로 연도별 감차규모 조정(현행 감차기간을 5년 ~ 10년을 탄력적으로 완화하여 시행)
  - 도농 복합지역은 해당지역 특성을 반영하도록 총량제 기준보완
  - 도시(동)와 농촌(읍·면) 지역의 인구·면적을 동시에 감안하여 택시총량을 각각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합산하는 등의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대전시 감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 ◇ (면허대수) 총 8,850대(법인 3,370대, 개인 5,480대)
  - ◇ (사업기간) '14.12~'15.3(4개월)
  - \* 본사업 : '15.4~'22.12(8년)

- ◇ (감차규모) 총 51대(법인 19대, 개인 32대)
  - \* 본사업 : 1,285대(총 1,336대)
  - ◇ (보상금액) 법인택시 3,600만원, 개인택시 9,000만원
  - ◇ (소요재원) 35.64억원(감차예산 6.63억, 업계 출연금 26.01억, 부가세\* 3억)
  - \* 시범지역 인센티브로 총 80억원 지원('15년 40억원, '16년 20억, '17년 20억)

- 대전시 감차 시범사업 현황
  - 감차시범사업('14. 12 ~ '15. 3) 종료 후 3개월간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 적용
  - 현재까지 목표 감차재원(35.64억원) 대비 약 64%(22.99억원)을 확보
  - 3월말까지 감차보상 완료





## 경기조합을 가다

경기도 조합은 조합원 수 2만6천3백77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조합 중 서울시 조합 다음으로 규모가 큰 조합이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조합인 경기도 조합이 최근 심상치 않은 행보로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전국 도 조합 중 최초로 도 조합이 LPG충전소 설립 투자비를 단독 출자하여 수익사업에 나섰다.

또한 농촌지역 조합원들의 운송수입원 개선을 위한 행복택시를 여주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4개 시군에 띄웠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경기조합 조창영 이사장

## 경기조합 '직영 LPG충전소 사업 진출'

### 조창영 이사장, 수원에 직영1호점 개업, 안산 성남도연내 개업

올 연초부터 시작한 행복택시는 아직은 미미하지만 농촌지역 조합원들을 위한 운송수입원으로 키우기 위한 경기조합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 LPG 충전소 개발

“경기도 조합은 산하 시 조합 중 상당수 조합이 수익사업인 LPG충전소를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택시의 주 연료인 LPG충전소는 조합원이 1천명만 넘으면 충전소 직영조건을 갖춘다고 합니다.

충전소 직영조건을 조합원 1천명으로 계산하면 조합원수가 3136명인 수원조합은 충전소 3개소를 직영할 수 있고 조합원이 2520명은 성남시 조합은 2개소, 2128명인 고양시 조합도 2개소, 2494명인 부천시 조합도 2개소의 충전소를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안산시 조합도 2개소, 안양시 조합과 용인시 조합, 시흥시 조합도 1개씩 LPG충전소를 직영할 수 있지요. 이처럼 경기도 조합은 LPG충전소를 개업 수익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조 이사장은 취임이후 조합의 면모를 선진 조합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그 어떤 기업인 못지 않게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도조합 사옥을 현대화 시켜놓고 이제는 도 조합의 수익성을 찾아 나섰다.

조 이사장은 2014년 17일 주식회사 E1과 임대 충전소 사업 제휴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8월 7일 경기 태평양충전소(주)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

임했다.

수원조합장과 3명의 조합원을 이사로 조합원 2명의 조합원 감사를 선임, 임원진을 구성, 임대료 4억원을 주고 E1과 충전소 임대 계약을 체결 9월 1일 경기 태평양충전소를 개업 1호점의 깃발을 올렸다.

수원시 장안구 서둔동 9-17번지 대지 1175평에 충전기 6대와 사무동 건물 103평의 정비 센터를 갖춘 경기 태평양충전소는 수원시 조합원들의 자가 충전소로 돌아왔다.

“충전소에 대한 자본을 도 조합이 단독으로 출자하였으나 수익금은 충전소 경영에 함께한 수원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할 겁니다.

도 조합이 충전소 사업에 참여한 것은 운송원가 절감을 통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보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안산조합과 성남조합에 직영 충전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충전소 불모지 경기조합에 직영충전소를 개설한 조 이사장은 직영충전소를 조합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 복지 증진 추진

경기 조합은 조합원들의 복리와 건강 증진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해당지역 조합원들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조합은 ▲서울 위드치과병원 ▲이건목원리 한방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 조합원과 가족의 치료비의 30%을 할인받고 있다.

정비 사업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모빌원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 2013년 11월부터 3년동안 차량 정비 사업 및 정비 부품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 조합원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2015년 4월 현재 ▲안산시 ▲고양시 ▲용인시 ▲평택시 ▲양주시 ▲남양주시 등 도내 6개 지역에 차량 정비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의정부시와 안양시 지역도 체인점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타이어 등 전품목의 차량 부품을 취급하는 모빌원 해당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경기도 조합 소속 택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올 상반기 중 SK텔레콤, KT텔레콤과 경기지역을 5권역으로 나누어 직영대리점 계약을 개설하여 조합원들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 노후 블랙박스 교체 추진

경기조합은 2013년 12월 개인택시 26010대에 국비 13억50만원 도비 18억9247만원 시·군비 46억1천만원 자부담 26억1천만 등 104억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통합형 디지털 운행 기록기를 장착했다.

한편 경기조합은 지난해부터 2채널 블랙박스 교체 사업을 추진 10500대분 예산을 따냈다.

조창영 이사장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때 당선인 유력한 여당 후보를 만나 블랙박스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도록 건의했다.



또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블랙박스 교체를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경기도 택시 정책과의 방침을 법 인택시와 합동으로 2개년 사업으로 단축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경기도청은 도 조합의 끈질긴 요구 조건을 수용 도지원 블랙박스 교체 예산으로 5억6천4백98만원을 올 예산에 반영했다. 도비지원이 결정되자 시·군예산도 8억 4천7백만원이 확정되어 올해안에 개인택시 10500대가 블랙박스를 설치하게 된다.

“나머지 미장착 택시는 2015년 제1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이 어려워도 내년에는 조합택시 전부가 설치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 이사장은 내년이면 전조합의 택시에 선진화된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조합원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운행중 승객들로부터 폭행 성추행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질 높은 공제 서비스**

“조합원들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 강화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는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유리한 사고 처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된 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간에는 보상 직원이 반경 8Km 지점 발생사고는 100% 출동하도록하고 있지요.”

조 이사장은 안전운전과 신속한 출동서비스는 흑자 경제의 지름길이라고 설명한다.

공제조합 경기도 지부는 손해 보험사와 비교하여 고객 서비스와 사고처리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객만족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고객에 대한 인사·안내·보상서비스를 매일 교육하는 등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CS교육을 하고 있다.

경기지부는 조합원 및 피해자 민원 감속에 적극 대응하여 전년도에는 유일하게 민원이 감소로 변화했고 올해는 민원 50% 감소에 도전하고 있다.

경기지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조합에서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4개지역 조합원 1천명에게 ‘주간 전조등 자동 점등장치’를 달아주었다.

◆ **시·군 조합 역량 강화**

“도 조합과 시·군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역할은 다르지만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고 운행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목적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조합은 32개 시·군 조합의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도 조합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 조합이 전액 출자하여 LPG충전소를 수원시 조합에 설치하고 또 안산시 조합, 성남시 조합에도 도 조합 충전소를 늘려가려고 하는 계획도 시·군 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시·군 조합이 자체 사육을 갖는 것도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과천, 광주, 연천 등 10개 시·군이 자체 사육을 확보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32개 시·군 모두가 자체 사육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 이사장은 말했다.

〈글·사진 김관술〉



| **경기조합 발전을 이끄는 임원진**



성남시조합장 지 중 구



이천시조합장 이 상 인



경주시조합장 김 철 수



허남시조합장 유 재 관



여주군조합장 김 동 일



양평군조합장 김 학 석



부천시조합장 김 회 석



광명시조합장 이 영 석



김포시조합장 강 홍 구



수원시조합장 김 진 석



울산시조합장 김 명 석



화성시조합장 김 재 웅



평택시조합장 정 영 석



평택시북부조합장 임 형 석



오산시조합장 김 상 철



안산시조합장 최 상 진



고양시조합장 편 창 대



의정부시조합장 김 인 길



남양주시조합장 박 일 석



구리시조합장 정 철 규



파주시조합장 문 우 석



양주시조합장 양 재 화



포천시조합장 박 화 영



동두천시조합장 최 홍 석



경북시조합장 박 성 규



연천군조합장 양 승 감



인항시조합장 한 규 표



인천시조합장 백 용 호



시흥시조합장 조 석 재



군포시조합장 박 중 기



인천시조합장 김 상 난



과천시조합장 김 정 수



경 기 도  
박 도 웅



경 기 도  
김 숙 길





## 제주조합을 가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제주조합 이치현 이사장

“제주도는 국제 관광 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렌터카 업체가 많아 유사 택시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택시업계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 운전이 허용되는 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운송수입 감소로 돌아오는 것이 뻔합니다.”

2014년 제주조합 제12대 이사장에 컴백한 이치현 이사장은 제주시 노형동 제주조합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렌터카도 총량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한다.

##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전허용 반대’ 이치현 이사장 “충전소·공제 흑자경영… 조합역량 집중”

이치현 이사장은 조합 경영을 책임진 지 1년만에 제주조합 경영이 판이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은 1인사업자가 모여서 형성된 경영체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이 이윤을 내지 못하면 경영 실적표도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오한 어조로 “조합 경영 목표는 조합원들이 이윤을 내는 운송사업을 하도록 업권 신장에 두고 조합 스스로는 공제와 수익사업인 충전소 등이 흑자를 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흑자 경영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 ◆ 업권 신장에 총력

제주도는 면적이 1857㎢로 서울시 면적보다 3배나 넓지만 인구는 61만2700명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에서도 제일 작은 광역자치단체다.

하지만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으로 뽑힌 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12백22만명 크게 늘어나 세계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하와이나 발리를 앞질러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 지난해 안전행정부에 90일미만 외국인 단기체류자에게 국제 면허증으로 시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안전행정부는 제주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4년 11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켜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이송 현재 계류중이다.

“제주도에는 렌터카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현재 35969대 렌터카가 있지요. 만약 외국인 특히 중국 관광객에게 제주 시내 운전이 허용되면 렌터카를 몰고 나와 시내 교통체증이 야기될 뿐 아니라 택시 운송수입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주조합은 연합회와 함께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저지할 것입니다.”

이치현 이사장은 특별법 제정 저지가 우리 조합원들의 업권 보호라고 설명한다.

또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면허 발급을 제한하도록 추진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 ◆ 도비 지원 확대 추진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 시설도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영상기록장치, 카드결제기, 디지털 운행기록계, 네비게이션 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왔다.

이처럼 차량 장비가 늘어날 때마다 조합은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위해 도비 지원을 받아냈다.

또한 현대화된 장비를 장착하고 나면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제주조합은 2015년 예산 지원을 확보한 금액이 8억 2천9백만원이다.

호출단체 통신비 지원금을 작년도보다 1억1천만 원을 증액, 브랜드 장비 교체 비용 3억1천5백만원, 조합체육대회 지원금 2천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확보

했다.

또 카드 소액 수수료 지원(8000원 이하) 1억 2천만원, 개인 글로벌 택시 통신 지원비 2천4백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지원을 확보했다.

한편 1만원 미만 카드 수수료 상향 지원 요구, 콜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900명에 대한 통신비 지원은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합의 역량을 집중한다. 이 밖에도 관광 통역 서비스와 관광지 외국어 설명 SD카드 구입을 위한 예산도 상반기 추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 택시 승강장 증설

택시 승강장은 승객이 편히 택시를 기다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다. 승강장은 택시가 합법적으로 주·정차하면서 승객을 기다릴 수 있는 곳이어서 불법 주차단속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택시의 공급 과잉으로 공차율이 60%인 점을 감안할 때 택시 승강장은 승객을 찾아 배회 운영을 하면서 낭비하는 연료 소모를 방지할 수 있는 경제효과가 있지요.” 이치현 이사장이 강력하게 승강장 증설을 요구하는 이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조합의 승강장 설치 요구를 받아들여 ▲시외버스터미널 ▲국제 부두 ▲성산항은 조기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공항 공단과 협의하여 단거리 대기차선에 팬서를 설치하고 장거리 대형 택시 승강장에는 6개의 돌의자를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쉼터로 개선했다.



◆ 보상 감차 추진

현재 제주도에에는 개인택시 3919, 법인택시 1555대를 합쳐 5474대가 운행하고 있다.

보상감차 실현을 위해 개인택시, 법인택시 양대 조합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끈질긴 노력 끝에 2011년 12억4천8백만원의 보상 감차 예산을 확보했다. 꿈쩍도 않던 보상감차가 개인택시 18대, 법인택시 10대를 감차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일궈냈다.

시동이 걸린 보상감차는 2012년에도 개인택시 6대, 법인택시 5대를 단행했다.

2013년에도 12대의 보상 감차 예산이 확보되어 법인택시 6대는 보상 감차 되었으나 개인택시는 희망 조합원이 없어 2대 감차에 그쳤다.

제주도의 보상감차 목표 댓수 1784대에는 크게 미달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지방정부재정으로 보상감차가 실현된 것은 대단한 실적이다.

그렇지만 개인택시 조합원 중 보상감차 희망 조합원이 없어 순항하던 보상감차는 정지된 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2014년 12월 16일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총량제 용역원 안내로 보상감차 댓수를 1737대로 원안 가결하고 감차 위원을 선정, 3월 31일 위촉식을 가졌다.

이치헌 이사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회는 감차에 따른 사업자 출연금 등을 최종 결정하여 오는 6~7월에 감차 계획 공고를 한 후 감차를 계속하기로 했다.

감차위원으로 선정된 이치헌 이사장은 “보상 감차가격을 시중 매매 가격에 선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 충전소 운영개선 역량 집중

제주조합은 자체 충전소 1개소와 임대충전소 1개소를 직영하고 있다. 충전소 경영은 조합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환원해주는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이다.

또한 조합이 충전소를 경영하므로 조합원들에게 정품의 LPG를 공급할 수 있고 시중의 일반충전소와 경쟁을 통해 LPG 판매 가격을 억제 하는 효과가 있다. 조합 충전소는 조합원들이 우리 충전소가 있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간접효과도 있다.

하지만 흑자 경영을 하지 못하고 적자 경영을 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도 없고 자부심도 줄 수 없다.

최근 몇 년동안 조합의 충전소 경영이 조합원들의 이탈로 매출 감소도 적자에 빠져 이치헌 이사장은 흑자 반전을 위해 조합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임원회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호출단체를 순방 조합 충전소 이용을 간곡하게 당부한다.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 도루 충전소 복지관 옥상에 매년 290만의 설치비를 받고 SK텔레콤 중계기 설치를 유지하고 충전소의 소모품 지출 억제를 위해 2014년 11월 1일부터 조합의 사전 결제를 받도록 했다.

충전소 소장은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친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마케팅에 변화를 주었다.

2011년부터 내리 3년동안 이어지던 적자 행진이 2014년부터 흑자 경영으로 돌아섰다.

〈글·사진 김관술〉



| 제주조합 발전을 이끄는 임원진



전영배 이사



김영주 이사



강승우 이사



강성철 이사



양공영 이사



이이모 이사



정성부 이사



한영철 이사



박금배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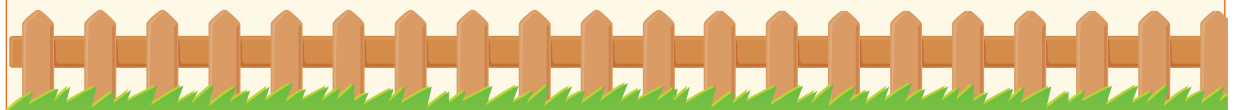
서상흠 이사



김동오 이사



고창국 이사









■ 현 황 (근거법령 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 ⑥ (생략)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개인택시 콜 사업자 운영비 관련 '14. 02. 17)

택시 콜 서비스를 위한 업체에 지원한 운영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한 보조금이 아닌 보령시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15. 1. 1. 자로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로 문의.

○ 브랜드 택시 등 지원 현황(충청남도)

지역	명칭	운행규모	지원규모	기타
천안	행복콜	1,377대	▪ 대당 월30,000원 지원 (기사15,000원/콜센터15,000원) ▪ 카드수수료건당 : 50원 보조	▪ 카드수수료 (1.9%) 연말 정산
보령	머드콜	188대	▪ 기존 지원금 전액 삭감.	
아산	스마트콜	378대	▪ 10,000원이하 결재 금액 수수료 전액지원	▪ 카드수수료 (1.9%) 연말 정산
서산	서산콜	266대	▪ 2014년도 통신비3개월분 -11,000,000원 지원	
금산	비단피	79대	▪ 연간 3천만 원 지원(2015) (운영비, 통신비, 급여, 임대료)	
세종	시티콜	21대	▪ 카드수수료 월10,000원 지원(대당)	
	도화콜	90대	▪ 카드수수료 월10,000원 지원(대당)	
논산	에스민	212대	▪ 센터운영비 연3천만원 지원 (2015) -기존 대비 6백만 원 삭감	
부여	굿프레콜	123대	연간 2,200만원지원(2015)	
서천	콜 없음	120대	▪ 만원미만소액결제수수료 (2.5%) 2천원지원, 통신비4,450원 지원	
예산	스마일콜	155대	▪ 연간 6,300만원지원(2015)	
당진	(유)당진 브랜드콜	214대	▪ 기존 지원금 전액 삭감.	

■ 문제점

○ 택시 이용촉진을 통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택시 콜서비스에 따른 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 및 동 서비스에 따른 통신료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5년도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여 택시 콜서비스 문화에 악영향을 끼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신설('14. 05. 28)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는 초유의 상태가 발생하고 있음.

○ 콜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택시요금에 반영하거나, 택시요금 외에 추가로 비용을 수수하여야 함으로써 택시이용 활성화 저해 우려

■ 개선방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개정을 통하여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 함.

현 황	개정 건의안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 ----- ----- -----.
1. 택시운송사업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 개발 사업 3. 택시운송사업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1. ----- --. 2. ----- ----. 3. ----- 4. ----- --.
〈신 설〉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택시 콜서비스에 따른 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등 운영비  6. (현행 제5호와 같음)

3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렌터카 임대차 허용 반대

■ 안전행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14. 12. 01)에 대하여 택시 노·사 4단체 공동명의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건의서 제출 (2015. 01. 19) 하였고,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들을 상대로 택시 노·사 4단체는 택시업계 의견을 전달('15. 04. 20)하였다.

주요내용	문제점
○ 중국인 등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렌터카 임대차 허용	○ 택시업종은 중국인의 렌터카 임대차로 인하여 사업경쟁은 악화가 심화  ○ 단기체류 외국인의 렌터카 임대차로 인하여 교통사고율 증가, 불법여객운송행위 증가 등이 예상
건의 주요내용	
□ 중국인 등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렌터카 허용과 관련된 제203조(단기체류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 등에 관한 특례)를 삭제	

■ 현 황 (관련 법령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203조(단기체류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상이 아닌 사람
2.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이하 "단기체류 운전면허"라 한다)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한정하고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90일 이내로 한다.

③ 단기체류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지역은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로 한정한다.

■ 제주도 렌터카 등록 및 교통사고 증가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등록대수 (증가율)	8,841	9,433 (6.70%)	21,055 (123.21%)	35,969 (70.83%)	
교통 사고	사고건수 (증가율)	233	237 (1.7%)	334 (40.9%)	394 (18.0%)
	부상자	449	418	560	638
	사망자	6	9	9	14







예약 등 장거리 이용객을 상대로 한 경우에 택시연료를 한정하여 사용한다면 연료 주유에 대한 불안감 고조는 물론 규제 아닌 규제로 인하여 영업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대국민서비스 개선과 장거리운행을 가로막는 등 악영향 초래

- (신용불량자 등 서면신청 금지) 신용불량자 또는 1일 충전한도 초과자 서면 신청 전면금지로 민원 발생
  - 현행 서면 신청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될 경우 개인택시 사업자의 서면 신청 단축으로 인하여 불편초래
  - “관할관청에서 서면신청 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조항이 삭제되어 앞으로 신용불량자 또는 1일 충전한도 초과자는 서면신청이 전면금지 되어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됨.

■ 개선방안

- (현행유지) 택시 연료인 LPG는 1일 최대 288리터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현행유지
- (현행유지) 서면신청 기한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30일 이내로 현행유지
- (현행유지) 신용불량자 또는 1일 충전 한도초과자 서면신청 현행유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원)

항 목	2015년도 예산
◎ 세입	1,980,827,800
회 비	1,679,827,800
이월금	300,000,000
기타수입	1,000,000
◎ 세출	1,973,627,800
1. 사무비	1,023,147,600
○ 인건비	660,736,000
· 급료	339,489,600
· 상여금	202,697,500
· 수당	118,548,900
○ 물건비	362,411,600
· 여비	4,680,000
· 공공요금	12,648,000
· 제세공과금	5,090,000
· 차량유지비	52,440,000
· 수용비	20,100,000
· 수수료 수선비	6,660,000
· 시설관리 유지비	36,000,000
· 복리후생비	224,793,600
2. 사업비	751,570,000
○ 물건비	194,920,000
· 여비	50,900,000
· 수용비	88,020,000
· 광고선전비	56,000,000
○ 판공비	289,200,000
· 기관운영 판공비	54,000,000
· 특별판공비	163,200,000
· 홍보활동비	72,000,000
○ 이용료	30,000,000
· 수수료	30,000,000
○ 선진화지원비	237,450,000
· 회의비	166,550,000
· 사회복지비	10,000,000
· 포상비	60,900,000
3. 재산취득비	25,000,000
○ 재산취득비	25,000,000
· 재산구입비	25,000,000
4. 분담금	25,000,000
○ 분담금	25,000,000
· 단체회비 분담금	25,000,000
5. 적립금	120,000,000
○ 적립금	120,000,000
· 퇴직적립금	120,000,000
6. 예비비	28,910,200
○ 예비비	28,910,200
· 예비비	28,910,200

# 2015년 주요 사업계획

## 기본목표

1.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택시 정상화
2. 세제 개선 및 재정지원 개선
3. 교통안전 생활화 및 서비스 개선
4. 단체 활성화 및 홍보활동 강화

## 1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택시 정상화

- 택시제도 개선 적극 추진
  - 불필요한 택시규제 조항 발굴
  - 택시 발전을 위한 법률 발굴 적극 추진
  - 업계 발전에 저해 되는 택시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대응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대응
  - 택시운임·요금제도(심야 할증시간대 확대 및 요일별 할증률 차등 적용 등)
  -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희망택시, 통학택시, 마을택시 등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다만,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양도·양수, 정년제, 운행시간 제한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적극 대응
  - 각 시·도 소비자 보호 조례의 소비자 정책심의에서 삭제(지방공공요금에서 배제)
- 택시감차보상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 국비지원을 상향조정, 정부예산에 감차보상금 증액 건의
- 택시감차계획 실태 파악 및 적극 대응
  - 전국 단위 실시에 따른 실태 파악 등
-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 도입에 적극 대응
  - 여객수요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택시 적극 활용 추진
- 대형택시, 고급택시 활성화 적극 유도
  - 대형택시는 10인승 이하에서 13인승 이하로 확대
  - 대형택시, 고급택시에 대한 요금 신고제 도입
- 차량청결상태 등 확인점검제도 위탁업무로 전환 추진
  - 조합이 실시하는 차량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조합의 위탁업무로 추진
- 개인택시 대리운전제도 개선추진
  - 조합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리운전 허용
- 대여자동차 제도개선 및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추진
  - 대여자동차의 가맹사업제도 도입반대
  - 누구든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 우버의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대책 강구
  - 우버의 불법여객운송 알선 및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 우버의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여객운송 금지
- 자가용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적극추진
  - 대리운전의 자동차 범위를 비사업 승용자동차로 제한
  -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강화
  - 대리운전자격시험 및 대리운전 교육제도 도입
- 개인택시 차령제도 개선에 적극 대응
  - 개인택시 차령제도 폐지
  - 한계운행거리를 80만km 이하로 규정할 경우 현행 차령제도 유지
  - 현행 차령제도 또는 한계운행거리 중 선택 적용
- 신규개인택시 양도·양수 및 상속금지제도 개선 추진
  - 신규개인택시도 종전의 개인택시면허와 같이 양도·양수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추진
- 산업단지 내 통근버스 확대 적극제지



-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 적극반대
- 전국택시 통합콜센터 가입에 대한 실태 파악
  - 통합콜 추진에 따른 한계점 개선
  - 콜사업 안정 및 확장을 위한 대책 마련
  - 현행 브랜드택시 활성화 등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통행 허용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평일에 운행

- 택시표시등 광고사업 시범운영 실시 추진
  -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을 조성
  - 택시표시등 광고 사업을 시범운영하여 전국으로 확산 시 광고수입의 50%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조합원(가족포함)에게 후생 복지 사업실시 추진
- 친환경차량 도입
  - 플러그인(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차량 구입에 따른 정부재정 지원 적극 추진

## 2 세제 개선 및 재정지원 개선

- 택시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일몰연장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차량구입 시 취득세율(현행4%→2%)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에 따라 2016년에도 적용 될 수 있도록 일몰 연장 추진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차량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제 일몰 연장 추진
  -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구입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면제 일몰 연장 추진
- 사업용자동차 자동차세 인상 대책 추진
  - 자동차세의 단계적 세율 인상('15년 : 50%, '16년 : 75%, '17년 : 100%)에 따른 시행유보 및 인상을 축소 건의
- 택시면세 유류구매카드제 개선
  - LPG충전소 판매가격 공개 의무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카드제 전산시스템상충전소별 실제가격이 적용토록 법령 개정 추진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부가가치세 면제로 감차지원 마련
  - 감차 보상 실시로 수입증가효과 기대
- 택시연료(LPG부탄)에 대한 유가 보조금 세제지원 일몰연장
  - 유가보조금 197.87/L이 2015. 6. 30까지 한시적 지원이 됨에 따라 일몰 연장 추진
- 택시연료(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일몰연장
  - 개별소비세·교육세 중 감면액 23.39/L이 2015. 12. 31까지 한시적 면제됨에 따라 일몰연장추진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추진
  - 간이과세자로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추진
  - 차량유지에 소요되는(잡유, 타이어, 정비비 등)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사업경영개선도모
- 경유택시 유가 보조금 지급 및 후속조치
  - 2015. 9. 1부터 경유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라 경유택시 생산 및 1만대 전환 규제 폐지 등 추진
  - 유류세 감면 대상을 CNG 등으로 확대 추진하여 경영부담 완화
  - 유종의 다양화 추진으로 차량의 선택의 폭을 확대
- LPG(부탄) 할당관세 영세율 일몰기간 연장 추진
  - 할당관세 영세율(기본관세3%→0%)이 201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일몰 연장 추진
- 택시연료(LPG부탄) 가격안정화 추진
  - 국제가격(CP)과 환율에 의한 가격결정 및 원가내역서 등 공개
  - 국외 LPG공급 독점과 국내수요과점(6개 공급사) 개선을 위한 LPG 수급체계 다변화
    - LPG 가격결정의 투명화와 불합리한 유통구조개선
    - 기타 언론 광고, 항의시위 및 방문 등 대책 활동 강화
- LPG 공급사에 대한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 LPG 정유사와의 민사소송 지속 추진
  - 법원이 주관하는 LPG손해배상 입증관련 감정평가연구용역 자료 지원 및 모니터링
    - 소송의뢰 변호인단과 긴밀 협력체제 구축
- 개인택시 차량 대폐차시 재정지원
  - 강제폐차로 인하여 국가의 자원낭비와 자원마련에 따른 경영 압박요인
  - 차량에 따른 강제 폐차 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정지원 추진

## 3 교통안전 생활화 및 서비스 개선

- 교통사고예방활동 및 서비스개선유도
    - 좌석안전띠 매기 캠페인 적극전개
      - 좌석안전띠 스티커 부착
    - 외국인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금지
    - 정지선 지키기 및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 친절운동전개 및 운전자 제복착용 적극유도
  - 콜 시스템을 통한 '브랜드 택시' 확대유도
    - 콜 장비 등 각종 서비스기기 설치에 따른 정부지원 건의
    - 조합원의 가맹점 가입 적극유도
    - 택시 예약문화 유도로 배회영업 지양
  - 택시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부재정지원 및 피해구제제도 확립
    - 차량의 서비스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장비(영수증발급기, 외국어 동시통역 시스템, 신용카드결제기 등)의 설치 및 운영비 등 재정지원건의
  - 에어백 재정지원 적극추진
    - 제조사 에어백 의무장착에 따른 차량가격 상승예상으로 정부지원 필요
  - 운전 적성정밀검사제도 개선
    - 특별검사대상자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제도 도입
    - 10년 이상 된 일반검사 대상자 면제제도 도입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 개선
    - 개인택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사고 시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제조사 차량 결함에 따른 리콜 및 A/S건의 적극추진
    - 택시차량의 품질 및 안전문제로 인한 분쟁발생시 리콜 등 피해보상을 위한 대응책 강구
  -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정부지원 추진
    - 노화된 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지원 건의
  - 교통안전제도 규제 개선
    - 운전적성정밀검사제도 등 개선
    - 규제관련 입법안에 대한 운수단체 공동대응
    -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검토하여 개선 추진
- ## 4 단체 활성화 및 홍보활동 강화
- 단체 활성화
    - 사기양양을 위한 모범조합원 및 임·직원 포상(창립기념일, 육운의 날, 기타)
    -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현황 정보관리시스템 운용방안 개선
  - 홍보 및 행사
    - 연합회 신문제작 배포를 통하여 연합회 사업추진실적 홍보 및 정보제공
    - 마스크 홍보를 통한 개인택시 이미지개선 홍보활동 강화
    - 자연보호행사 및 체육행사 실시
    - 육운의 날 행사 적극 참여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교통문화 창달
    -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추진사항 등 적극 홍보
  - 해외 택시제도 및 산업시찰
    - 선진외국의 택시제도 및 산업시찰을 통해 사례수집과 택시운송업의 발전방안 모색
  - 사회복지사업
    - 고아원, 군경 및 불우이웃돕기



연합회는 지난 2월 24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상정의안으로는 제1호의안 2014년 공제조합 결산보고 및 승인에 관한 건, 제2호의안 2014년도 공제조합 적자지부 추가분담금 부과에 관한 건, 제3호의안 2014년도 연합회 결산보고 및 승인에 관한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14년도 결산서>

(단위 : 원)

차 변		대 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 유동자산	1,887,486,685	※ 부채·자본	2,198,447,939
1. 현금	33,213	1. 퇴직적립금	517,098,461
2. 보통예금	796,227,542	2. 퇴직적립충당금	543,162,662
3. 정기예금	517,098,461	3. 재산취득충당금	35,478,298
4. 유가증권	857,000	4. 예수보관금	35,853,754
5. 미수금 (연합회비)	548,270,469	5. 미지급금	66,854,764
6. 대여금	25,000,000	6. 연합회적립금 (회관지분금)	1,000,000,000
※ 유동기타자산	1,252,000		
6. 전화가입금	1,252,000	※ 잉여(손실)금	725,769,044
※ 고정자산	1,035,478,298	전기이월잉여금	454,361,513
7. 차량운반구	5,807,410	당기잉여(손실)금	271,407,531
8. 집기비품	29,670,888		
9. 회관지분금	1,000,000,000		
합 계	2,924,216,983	합 계	2,924,216,983

# 자동차공제 약관의 개정 안내

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약관을 일부 개정하였다.

공제약관의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상법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공제약관에서 상반되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다.

첫 번째 상법 개정에 따른 공제약관의 개정은 개정 전의 상법에서는 조합원 및 가족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공제조합은 보험대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공제조합에서 조합원 가족에 의한 고의사고는 보험대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위규정이 신설 되었으며, 공제조합의 의무 중 약관교부·설명 의무를 공제조합이 위반할 경우 조합원은 의무공제를 제외한 담보에 한하여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되었다. (단, 의무공제 담보는 제외).

두 번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한 약관개정 내용

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대인공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공제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사고부담금이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또는 조합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공제조합은 보상금에서 사고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조합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공제 자손사고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이 지급할 자손담보 보상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나, 대법원 2012다204808호(2014. 9. 4)의 “안전띠 미착용 사고에 대한 보험금 감액 약관은 무효” 판결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여 안전벨트 미 착용에 대한 자손사고 공제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하였다.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 2015 개인택시공제조합 신규직원연수과정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난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하나은행연수원에서 신규직원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4년도에 신규 임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과정은 자배법 및 약관해설, 대인·대물보상실무, 계약업무실무, 구상(소송)실무 등의 강의가 있었으며, 공제조합 신규직원들의 업무지식 및 자질 함양을 위하여 교육수준 및 과목을 편성한 맞춤형 학습 교육으로 일정이 진행됐다.

특히 각 강의의 강사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간부급 이상 직원들로 구성되어 업무지식 전달 뿐 아니라 다년간 공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았던 업무 경험과 현장 사례들을 전하며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이 실시하는 신규직원연수과정은 공제조합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가장 긴 일정으로 진행되며, 또한 교육생들이 수강해야 하는 과목도 그만큼 많다.

조합의 업무 특성상 자동차보험 및 이에 따른 관계법령은 기본적으로 숙

지가 되어 있어야 업무 일선에서 자신의 몫을 다 할 수 있기에 공제조합은 매년 철저한 준비와 계획 하에 신규직원연수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7박 8일간 기본적으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의가 진행 되었으며, 오후 6시 이후로 야간교육 및 분임토의 시간 등이 배치된 날도 있어 교육생들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정으로 연수가 진행됐다.

또한 연수의 마지막날에는 전체 강의 과목에 대한 평가가 이어져 연수일정을 소화하는 교육생들은 한시라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8일간의 일정동안 연수를 지켜보며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하나라도 더 배우고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구슬땀을 흘렸던 공제조합 새내기들의 열정과 패기였다. 강의 시간 동안에는 단 한명의 교육생들도 피곤한 기색 없이 강사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집중하는 모습이었으며, 특히 공식 일정이 다 끝나고도 강의실에 남



아 동기들과 함께 그 날 배운 것을 복습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연수 일정 내내 접할 수 있었다.

연수의 마지막 날, 과정평가가 종료되고 기념촬영을 하는 직원들의 얼굴에서 비로소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동기들과 연락처를 나누고 연수원을 떠나는 교육생들의 표정과 발걸음에서 성취감과 함께 공제조합의 일원으로서 이

제 자신도 한축을 담당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2015년 신규직원연수과정을 시작으로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교육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규직원들의 활기참과 신선함으로 산뜻하게 시작된 일년의 교육과정이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큰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직원들과 함께 연수원을 나섰다.

인터넷 <http://www.개인택시.org> 으로도 기사확인 가능합니다.



# CNG 택시가 ‘바이오가스’로 달린다

원주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 본격 가동  
현재까지 50여대 개조, 올해까지 100대 목표

충전인프라 부족과 LPG 대비 경제성 축소로 외면을 받고 있는 CNG 택시 개조사업이 강원 원주에서 다시 시작됐다. 대신 연료는 CNG(압축천연가스)가 아닌 순수 바이오가스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 도시가스업계에서도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품질 기준에 맞게 정제해 배관망에 주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바이오가스의 차량연료화 사업도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의 CNG 택시 개조사업은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조 실적을 보이던 대구시가 경제성 미달과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사실상 반려하면서 한동안 난항에 빠졌다.

특히 LPG 대비 경제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와 충전 인프라 부족, 출력저하와 고장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며 수개월간 참여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아 국토부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하지만 강원 원주에서 ‘바이오가스’라는 새로운 카드로 이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택시에 연료로 주입되는 바이오가스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에서 운영하는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에 생산된다.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은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에 위치해 있다.

시설 전방에 원주공공하수처리장이 위치해 있어 유틸리티 연계성이 우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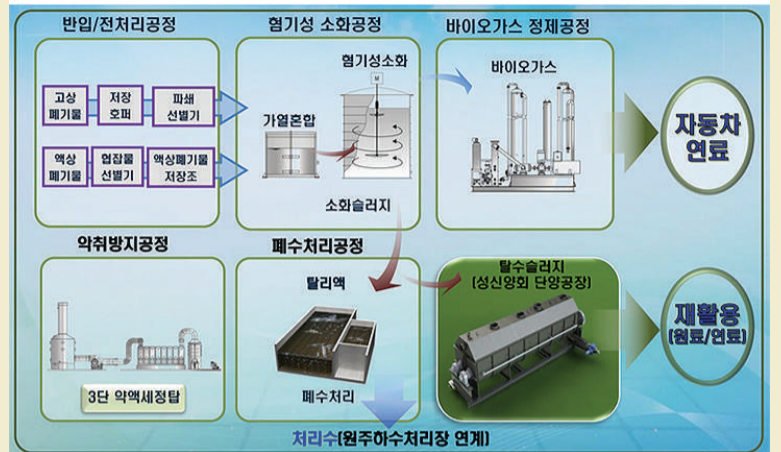
총 사업비는 약 294억원(재정지원금 147억원, 민간자본 147억원)이 투입됐다. 처리용량(음식물류폐기물 및 음폐수)은 약 220톤/일이다.

강원바이오에너지측은 이번 시설 준공으로 ▲유기성 폐기물의 육상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화로 화석연료 대체 및 편익 증대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폐기물 절감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연료로서 기존 유기성 폐기물 소화가스의 고부가 가치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시는 최근 준공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용처를 확

## 주요 공정



▲ 강원바이오에너지의 자동차연료화시설 공정 시스템.

보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됐으나 택시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LPG나 CNG 보다 저렴하게 연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시범운영으로 무료로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현재까지 약 50여대의 택시가 CNG 개조를 마치고 운행 중에 있다. 올해까지 100대,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로 100대를 개조한다는 목표다.

〈기사 제공 : 석유가스신문〉

# 벤츠·BMW 택시업계 진출 ‘워밍업’

9월부터 시행...택시표시등·미터기 등 의무설치는 없애

메르세데스-벤츠나 BMW와 같은 외제차 고급차종에 서비스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고급택시'를 이르면 올해 안에 볼 수 있게 됐다. 돈을 더 주고서라도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층을 겨냥한 사업이다. 택시표시등이나 팻말·미터기 같은 장치를 달지 않을 수도 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택시사업자가 고급택시를 쓰는 걸 좀 더 수월케 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배기량 3000cc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걸 2800cc로 낮추는 한편 택시 안팎에 달아야했던 각종 의무 표시 장치를 없앴다. 지금은 택시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각종 표시장치를 달고 미터기나 결제수단을 갖춰야 했는데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 고급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서비스수준에 따라 요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택시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각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외국귀빈이나 우리 국민도 고급택시를 찾는 수요가 있지만 해당 규정

까다로워 실제 운행하는 차량은 한대도 없는 상황”이라며 “고급택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다. 김선우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부장은 “일본의 하이야(higher의 현지발음)택시와 같은 고가, 고급서비스 택시가 자리를 잡았듯 국내에서도 일정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대로 배기량 기준을 낮추면 모범택시로 일부 쓰이고 있는 그랜저 가운데 상위트림 차종을 고급택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업계에서는 여기서 나아가 외산 고급차 브랜드의 대형세단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차종이나 서비스 수준을 높인 만큼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택시 대부분은 LPG를 연료로 쓰는데 이런 점을 꺼리는 외국인도 있다”며 “외국에서는 고급 대형세단을 하루 동안 쓰면 70만~80만원 수준인데 국내서는 초창기인 만큼 이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버택시도 영향을 끼쳤다. 우버블랙과 같이 고

## 9월부터 달라지는 고급택시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현행	구분	개선
배기량 3000cc 이상	구분 기준	배기량 2800cc 이상
O	외부 표시 의무적용 대상	X
-	추가 의무 면제	미터기카드결제, 택시 표시등 장착 의무 면제, 요금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형택시 종류에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추가하고 외부 표시 및 택시 표시등 장착 의무 면제


급콜택시를 표방한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법논란으로 자리 잡지 못한 만큼 아예 고급택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고급택시 사업이 본격화되면 렌터카업체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기사 포함 서비스와 수요층이 겹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과거에는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일부만 허용됐지만 지난해 관련법을 고쳐 지금은 누구나 대형 렌터카를 탈 때 기사를 쓸 수 있다.

렌터카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여행객이나 신혼부부를 타기로 한 서비스로 고급택시와 요금이나 서비스 수준이 얼마큼 차이를 보이냐에 따라 고객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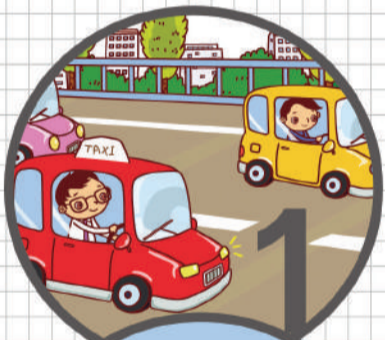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 안전운전 365일



다음 4가지 사고만 예방하여도  
교통사고 확! 줄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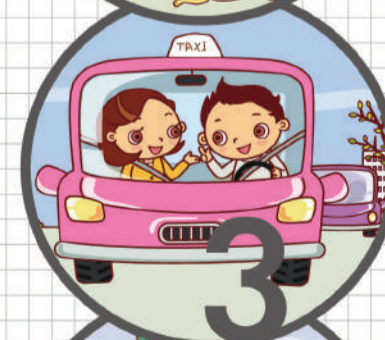
## 방향 지시등 켜기

자신이 진행할 방향을 다른 운전자에게 표시하면 상호간에 신뢰를 주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향등 켜기,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도로 위의 약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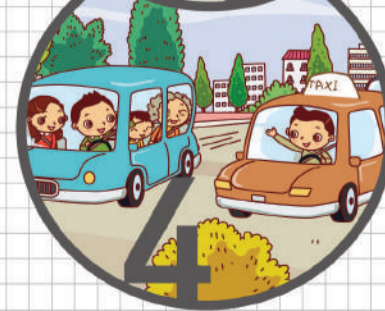
## 운전중 휴대전화 및 DMB 시청하지 않기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한곳에 주의력을 빼앗겨 다른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중 휴대전화 및 DMB 시청은 절대 안됩니다.



## 전좌석 안전띠 매기

모든 여객 자동차는 뒷좌석까지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매기는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지킬수 있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 배려운전

영업용 차량의 특성상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선 변경시 꼭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 우 백미러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양보 및 방어 운전하는 습관을 생활화 합시다.



## 동호회 탐방

수원조합 '뫼' 산악회

# 19년동안 260산 원정 등산

## 금연·금주 원칙 지키고 쓰레기 주워 하산

(사진제공 : 임용태 총무 / 글 양소진 기자)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등산 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하체 근력과 심폐 기능이 강화되는 운동효과 말고도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고 인내심을 키워주는 보너스도 받게 되니 산은 보약이나 다름 없지요.”

윤기동 수원조합 다조 '뫼' 산악회장의 등산 예찬이다.

수원조합 '뫼' 산악회는 1996년 6월에 창립된 열아홉살 청년이다. 수원조합 다조 조합원들로 구성된 50여명의 대가족이지만 형제지간처럼 우애가 깊다.

창립 당시 회원은 10명을 조금 넘길 정도로 단촐했다. 평소 산을 좋아하는 조합원끼리 모여 충북 단양에 있는 소백산을 첫 산행한 것이 '뫼' 산악회의 탄생이다. 1996년 6월 3일 다조 조합원 13명이 모여 휴조택시 3대에 나누어타고 산행을 시작했다. 아침일찍 출발 오전에 도착한 일행은 해발 1438m 정상에 올랐다. 평소 수원 인근의 산을 오르다 소백산 정기산행은 감개 무량했다.

첫 산행 투어에 성공한 회원들은 19년동안 매달 한차례씩 정기 산행을 하게 되면서 260회째 거르지 않고 이어오는 전통을 만들었다. 뫼 산악회 회원들이 그동안 등산했던 산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갈 산이 없어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유명산은 봄·여름·가을·겨울 등 계절에 따라 등산을 한다. 한 번 다녀온 산도 다시 가고 싶을 때에는 앵콜 산행을 할 만큼 50여명 모두가

산에 대한 애정이 깊다. 산에 대한 애정이 유별난 뫼 산악회는 품격있는 등산을 한다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산행을 하는 날은 금연, 금주를 원칙으로 하고 하산을 할 때는 가지고 간 포대에 쓰레기를 주워오는 불문율이 있다. 뫼 산악회 회원들의 산 사랑에 대한 소문은 산림청에까지 전달되어 북부지방 산림청장이 뫼 산악회 회원들에게 명예직이지만 '숲 사랑 지도원증'을 발급해주고 산행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등산을 통해 호연지기를 즐기는 뫼 산악회 회원들의 운영도 독특하다. 뫼 산악회는 다른 동아리 보다는 월 회비를 많이 걷는다. 그동안 25000원씩 받는 월회비를 올해부터는 30000원으로 인상했다.

“산악회 운영 경비를 월 회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달 한번씩 정기산행과 정기 회식을 하기에는 월회비가 부족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인상했다”고 임용태 총무는 말한다.

정식 회식 때는 회원들이 푸짐하게 식사를 하면서 격의 없이 친목을 다지는 자리여서 우애가 넘쳐난다.

### ◆ 유별난 회원 자격

정관에 규정된 회원자격에는 '산을 사랑하고 아끼며...' 라고 되어있다.

또 뫼 산악회 목적에는 산악 활동을 통하여 체력 연마와 극기심 및 협동심을 배양하고... 자연을 보

호하고 가꾸는 환경운동을 전개하며 삶에 찌든 몸과 마음을 깨끗한 자연 속에서 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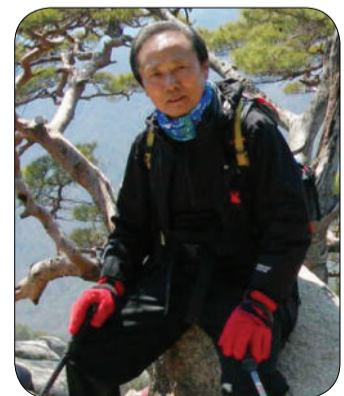
뫼 산악회 정관에는 회원의 자격에서부터 목적에 까지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환경운동까지 정해놓고 실천하는 수준 높은 산악회다.

산악회를 운영하는 임원은 ▲회장 ▲부회장 ▲산악대장 ▲산악 부대장 ▲총무가 분담한다.

특히 임기 2년의 회장을 역임하고 나면 고문으로 위촉된다. 19년 세월의 산악회 역사가 많은 만큼이나 고문 수도 많다.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윤기동 ▲부회장 김남희 ▲산악대장 장동식 ▲산악 부대장 조남기 김종수 ▲총무 임용태 (문의 ☎ 010-5388-5839) ▲감사 정도영 유병문 ▲고문 김현태 한우형 문종호 김학욱 장용순 이명소



▲ 회장 윤기동.





# 건강을 위협하는 황사, 미세먼지 대처법

얼마 전까지는 하늘을 누렇게 덮는 황사가 걱정이었지만 최근에는 되려 맑은 날에 더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때문. 황사는 가시적인 효과가 뚜렷해서 경각심이라도 일어나지만 미세먼지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날은 맑아 보이는데 날씨예보에서 미세먼지 등급이 매우 나쁨이라고 알려줄 때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황사보다도 위험한 미세먼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 황사가 처음 발생했을 때도 크게 보도가 되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미세먼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황사는 중국 몽골의 흙먼지가 미동해 떨어지는 자연현상인 반면 미세먼지는 자동차, 공장,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황사는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기는 해도 대부분 모래바람이지만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각종 중금속을 상당량 품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체내에 쌓이게 되면 간단하게는 감기,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에서부터 피부병, 안구질환, 심혈관 질환까지 각종 질병에 노출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믿지 말고 외출 전 꼭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해야 한다.

## ▶ 미세먼지 예보 등급별 행동 요령

미세먼지 예보등급 별 행동요령		
<b>약간나쁨(81~120)</b> 장기간 실외 활동 가급적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권장 충분한 수분 섭취	<b>나쁨(121~150)</b> 가능한 실외 활동 자제 외출시 마스크 꼭 착용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긴 소매, 긴 바지 옷 입기	<b>매우나쁨(150 이상)</b>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실외 활동 제한 황사방지 마스크 착용 필수 55% 이상 실내 습도 유지 30µg/m <sup>3</sup> 이상이면 무조건 실내 활동

미세먼지 예보를 제대로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등급별 행동요령을 먼저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은 터라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행동요령은 알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위 사항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행동요령이다. 매우 나쁨의 기준은 현재 미세먼지 농도 150부터이지만 최근 서울에는 이 5배가 넘는 800까지 기록된 적이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일기예보를 통해 확인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미세먼지농도'를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다.

## ▶ 미세먼지 배출에 좋은 음식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시 긴 소매 옷과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몸 안에 쌓인 미세먼지를 배출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흔히 먼지 등이 몸안에 쌓였다하면 삼겹살을 찾는 사람이 많다. 소위 '목에 때를 벗긴다.'라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폴리화지방산이 위장에서 녹아 중금속

을 배출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을 마셔 건조함을 예방하고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물만 마시기 심심하다면 차(tea) 종류를 마시는 것도 좋다.

미역 등의 해조류도 중금속 배출 효과가 뛰어나며, 미세먼지 배출 이외에 면역력을 강화함으로써 몸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무, 생강, 도라지 등의 호흡기, 폐 기능 강화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 ▶ 집안에 쌓인 황사/미세먼지 처리법

집에 쌓이는 '미세먼지 대비법'

1.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창문 틈을 막아 틈 사이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한다
2. 공기청정기 기능의 허브로 실내공기를 정화한다
3.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한다
4. 물수건, 어망, 화초 등으로 실내 습도를 높인다
5. 외부먼지가 많은 때에는 먼지를 털기보다 물걸레로 자주 닦아준다

외출 시도 문제이지만 외부 공기를 통해 집안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문제다. 집안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외출을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부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더구나 집안에서는 더 간편한 차림으로 있기 마련이라 영향은 더 크다.

그러니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날을 골라 환기를 하고, 높은 날에는 창문을 꼭 잠가 외부의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공기청정기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허브 등을 배치하고, 실내 습도를 높이도록 하자.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춰지기 때문이다. 단,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질산염 등의 성분이 물과 결합해 해로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습도는 50%선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먼지, 황사 등이 쌓인 곳을 털기 말고 물걸레질로 깨끗하게 자주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 ▶ 적절한 미세먼지 대처로 건강하게

미세먼지에 노출이 된다고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고, 나날이 그 농도가 짙어지는 날이 많아지니 나와 가족들을 위해 주의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하자.





# “이게 정말 택시아?”

국내 최초  
연료탱크를 숨긴  
도넛®탱크 기술  
기사님들이 누리게 될  
택시업무의 편리함은  
넓어진 트렁크의 놀라움,  
그 이상입니다

트렁크 공간을 100% 활용하는 SM5의 혁신 도넛®탱크  
**SM5 LPLI 택시**



실린더형 탱크



도넛®탱크

**도넛®탱크 혁신** : 트렁크 용량의 한계를 완벽히 극복한 혁신 **고효율 연비** : 리터당 9.6km로 동급 최강 연비  
**안전한 운전** : 듀얼 스테이지 스마트 에어백 시스템 적용 **튼튼한 내구성** : 동급 유일의 신가교 내스크래치 클리어 도장 적용  
**놀라운 주행성능** : 최적 튜닝으로 고속에서도 안정감있고 편안한 주행성능



르노삼성자동차

SM5 Nova 2.0 CVTCLPLI 엔진 : 복합 연비 9.6km/l (도심 : 8.6km/l, 고속도로 : 11.2km/l), 무단변속기, CO<sub>2</sub> 배출량 139g/km, 배기량 1,998cc, 공차중량 1,470kg, 4등급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DONUT®은 르노삼성자동차의 고유한 등록상표입니다. COPYRIGHT © 2015 RENAULT SAMSUNG MOTORS



냉방용량	도시가스		전기	
	GHP	흡수식	고효율기기	축냉식
10RT	설치 2,800 설계 100	제품없음	-	설치 960
20RT	설치 5,200 설계 200		-	설치 2,400
60RT	제품없음	설치 5,250 설계 600		설치 8,160
100RT		설치 10,000 설계 1,000		설치 14,400
200RT		설치 20,000 설계 2,000	설치 4,900	설치 14,400 (100RT와 감축전력 동일)
300RT		설치 27,500 설계 3,000	설치 7,280	설치 36,000 설계 1,800
500RT		설치 42,500 설계 4,000	설치 12,320	설치 60,000 설계 3000
1,000RT		설치 67,500 설계 5,000	설치 24,640	설치 117,000 설계 5,850
2,000RT		제품없음	설치 49,280	설치 215,000 설계 10,750
용자지원		0	0	X
비고			설계지원 없음	제품형 : 200RT이하 설비형 : 200RT 초과